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신: 포럼아시아 - 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인권상황 공동조사단
문의: 문정호 (아시아인권위원회),
날짜: 2008년 7월 21일 (월)

보 도 자 료
아시아지역 인권단체,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
촛불시위 관련 한국인권상황 공동조사단 파견

1. 아시아 지역차원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2개월간 진행되어온 한국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관련한 일련의 인권상황을 주시해왔다.
2. 특히 유엔인권옹호자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권리침해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어오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에 관련 사실조사를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4인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파견한다.
3.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은 다음의 사항에 이번 활동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인권의 증진,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옹호자들의 제반 활동을 저해하는 권리침해 의혹에 관하여 관련 개인, 단체, 정부기관의 증언과 사실자료를 수집
 -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관련 국내 법제에 대한 조사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평가
4.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옹호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끝.

[첨부] 포럼아시아, 아시아인권위원회 단체 소개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는 아시아 15개국의 40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차원의 인권단체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시아 연대와 인권 (Asian Solida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이라는 비전 하에 인권옹호자,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화와 역량강화,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사무국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지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각종 인권이슈에 대한 대유엔 로비활동을 활발히 벌여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가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www.forum-asia.org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는 아시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긴급청원 활동,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구조사 및 로비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차원의 인권단체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984년 설립되었으며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스리랑카 판사 출신인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는 지난 2001년 제2회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www.ahrchk.net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인권상황 공동조사단원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방콕사무국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매니저
Ms. Rebecca C. Fan, 포럼아시아/ 대만인권협회 (TAHR) 국제협력국장
Mr. Bruce Van Voorhis, 아시아인권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
Mr. Jeongho Moon, 아시아인권위원회 긴급청원 프로그램 담당



Joint_FFM_press_release_21July2008_kor[1].doc

189K